

高麗 寺院形止案의 復元과 禪宗寺院의 공간 구성 검토

최연식*

I. 머리말

II. <泰安寺形止案>의 復元과 寺院形止案의 작성 시기

1. <泰安寺形止案>의 復元
2. ‘寺院形止案’의 성격과 작성 시기

III. <修禪寺形止案>의 보완과 高麗시대 禪宗寺院의 공간 구성

1. <大安寺形止案>과의 비교를 통한
 <修禪社形止案> 佛像間閣 부분의 보완
2. 寺院形止案에 나타난 修禪社와 大安寺의
 건물 및 공간 구성

IV. 맺음말

요약문

현재 전해지고 있는 寺院形止案은 고려시대 사원의 건물과 토지, 그리고 사원의 중요한 금석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고려시대 사원의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래 문서의 형태로 전하는 것은 <修禪社形止案>이 유일하지만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대안사형지안>도 복원 가능하다. 복원된 <대안사형지안>은 항목별 기재 순서 및 기재 방식 등에서 <수선사형지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들 문서가 같은 시기에 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선사형지안> 중 앞부분 일부가 결락되어 있지만, 복원된 <대안사형지안> 및 다른 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결락된 건물들의 상당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록되어 있는 건물들 이외에 佛殿과 僧堂을 비롯하여 善法堂, 祖師堂, 內樓門, 食堂, 淨廚 등이 확인된다. 이렇게 확인된 수선사의 건물들 중 상당수는 <대안사형지안>의 건물들과 공통되고 있는데, 이들은 고려시대 선종 사원의 일반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두 사찰 중 한쪽에만 보이는 건물들도 있는데, 이들은 해당 사찰의 지리적 특성 및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寺院形止案, 修禪社, 大安寺, 禪宗寺院, 사원의 공간구성, 高麗時代 불교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oliena@paran.com

I. 머리말

전남 순천 松廣寺에는 보물 527호로 지정된 <修禪社形止案>¹⁾과 <奴婢帖> 등 고려시대 문서 2점이 전해지고 있다.²⁾ 그중 <수선사형지안>(보물 527-1호)은 현재 송광사의 전신이 되는 修禪社의 현황을 정리한 고려후기의 문서로서 고려시대 사원의 구체적 모습을 전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1971년에 처음으로 문서의 기본 성격과 서지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고,³⁾ 2000년에는 문서 전체에 대한 자세한 판독과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다.⁴⁾ 또한 역사학과 불교학, 건축학 등의 분야에서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사원 건축,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검토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⁵⁾

그런데 20세기 전반에 편찬된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된 자료들 중에도 고려시대 사원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들이 보이고 있다.⁶⁾ 이 자료들은 원문서에서 발췌되어 있어서 그 성격이나 작성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수선사형지안>의 내용 및 기록 방식과 비교할 때 <수선사형지안>과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동일한 성격의 문서의 일부로 파악된다. 즉 泰安寺의 전신인 大安寺의 고려후기의 현황을 정리한 <大安寺形止案>의 일부인 것이다.⁷⁾

이와 같이 고려후기의 사원 현황을 정리한 사원형지안은 2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문서들은 둘 다 온전한 형태로 전하고 있지 않다. <수선사형지안>은 문서의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고, 전해지는 부분에도 결락된 부분이 적지 않다. <대안사형지안>은 원래의 문서 자체는 전해지지 않고, 문서 내용 중 일부만이 발췌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두 문서 모두 불완전하지만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을 비교, 대조하면 두 문서의 원래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고, 결락된 부분을 일정 정도 보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수선사형지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된 자료들이 <수선사형지안>과 같은 시기에 작성된 <대안사형지안>의 일부임을 밝히고, 본래의 <대안사형지안>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복원된 <대안사형지안>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수선사형지안> 앞부분 佛像間閣 중의 결락 부분을 보충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후기 수선사와 대안사의 모습 특히 건물의 종류와 공간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先學諸賢의 叱正을 기대한다.

II. <泰安寺形止案>의 復元과 寺院形止案의 작성 시기

으로 확인되지만, 전자의 편찬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후 관계를 고려할 때 이에 앞서 松廣寺 寺誌인 『曹溪山松廣寺史庫』를 편찬한 경험이 있는 綺山 任錫珍 스님의 관여 하에 정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고려시대 사원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들은 앞 쪽의 자료집 성격의 『桐裡山泰安寺事蹟』에 들어 있다.

- 1) <修禪社形止記>로도 불리지만 임의적 기록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문서인 案籍이라는 점에서 <修禪社形止案>으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2) 이 두 점의 문서와 함께 보물 527호로 지정되어 있던 티베트文 문서는 2003년도에 다른 문서들과 구분되어 '티베트文 法旨'라는 이름으로 보물 1376호로 별도로 지정되었다.
- 3) 任昌淳[1971: 40-49] 이 연구를 토대로 송광사의 고려시대 문서들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 4) 盧明鎬 외[2000: 373-403]
- 5) 朴宗基[1981]; 許興植[1993]; 金東旭[1993]; 배상현[2004]; 김희철·남호현[2008]
- 6) 『泰安寺誌』(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84년), 113-118면과 142-144면. 『泰安寺誌』에는 20세기 전반에 편찬된 두 종류의 『桐裡山泰安寺事蹟』이 수록되어 있다. 앞에 수록된 것은 대안사에 전해지는 여러 자료들을 종류별로 모은 자료집이고, 뒤쪽의 것은 이를 토대로 대안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후자의 찬술자는 당시 송광사 주지였던 綺山 林錫珍 스님

7) 盧明鎬 외[2000: 419-428]

1. <泰安寺形止案>의 復元

2000년에 간행된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에서는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된 자료 중 고려시대 사원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본래 <수선사형지안>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大安寺形止案> 중의 일부 내용들로 파악된다는 견해를 밝혔다.⁸⁾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아직 학계 일반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현재도 해당 자료들을 고려초기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먼저 이들 자료가 <대안사형지안>의 일부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桐裡山泰安寺事蹟』에는 고려시대의 사원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제2편 建物 제4장 片史 중의 ‘高麗太祖 二十有年頃 廣慈禪師重創’ 항목에 ‘當時佛像間閣’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된 것으로 당시 태안사에 있던 여러 건물들의 종류와 규모가 기록되어 있고[A],⁹⁾ 다른 하나는 제3편 雜部 제17장 雜錄 중의 ‘廣慈時大衆’ 항목에 ‘福田數法席’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된 것으로 당시 태안사에 주석하던 승려의 수와 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穀物과 田畝, 奴婢 등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B].

[A]

- 1 當時佛像間閣 ①金堂一間排回丁向 上柱四 長八尺五寸
- 2 退柱十二 長七尺八寸 上楸二 長十二尺
- 3 退柱十二 長六尺五寸 樑三 長十二尺 通
- 4 內廣九尺七寸 長十尺五寸 階高四尺
- 5 堂主藥師如來鐵造坐像 高四尺六寸
- 6 內壁畫大梵帝釋四方天王十大弟子
- 7 外壁畫五十五知識 並立像

8) 盧明鎬 외[2000: 419-420]

9) 『泰安寺誌』, 113-118면

- 8 ⑥食堂三間丁向 提柱八 長九尺 退柱八 長
- 9 五尺七寸 上楸四 長十四尺 退楸八 長七
- 10 尺 樑七 長十尺 通內廣十二尺 長九尺 階
- 11 高三尺
- 12 堂主藥師鐵造丁向 坐像高三尺三寸 左
- 13 右補處無
- 14 ⑦僧堂四間乙向 第柱十 長十尺 退柱長
- 15 八尺 上楸五 長十五尺 退楸長七寸樑
- 16 五一間 通內廣十二尺 長十一尺 階高一
- 17 尺七寸
- 18 堂主毘盧遮那畫像一幀
- 19 ⑧選法堂三間丁向 柱八 長七尺 楸四 長十
- 20 六尺 樑七 長十一尺 通內廣十三尺五寸
- 21 長十尺 階高四尺 左翼廊三間 右翼七間
- 22 丁向 ⑨羅漢堂三間丁向 柱八 長六尺 楸四
- 23 長十四尺 樑五 長九尺 通內廣九尺 長八
- 24 尺 階高二尺 堂主釋迦如來 十六聖衆
- 25 各幀 五百羅漢都畫幀 犯行廊三間乙
- 26 向 ⑩大藏堂三間丁向 柱八 長七尺五寸 上
- 27 楸四 長十五尺 樑七 長十尺 通內廣十二
- 28 尺 長玖尺 階高三尺 西衍行廊四間乙向
- 29 ⑪經房梗玖間壬向 ⑫維那房玖間 ⑬三寶庫廳
- 30 四間丙向 上柱十 長七尺五寸 退柱十 長
- 31 五尺五寸 上楸五 長十五尺 南北退楸十
- 32 長六尺 樑七 長十三尺 通內廣十二尺 長
- 33 九尺 階高二尺 ⑭大庫梗五間癸向 ⑮樓椽
- 34 三間癸向 第柱八長五尺 退柱四 長四尺
- 35 楸四 長十一尺 樑四 長十一尺 童足柱十
- 36 二 長五尺 通內廣玖尺 長十尺 犯西行
- 37 廊三間 ⑯淨廚五間癸向 第柱十二 長玖尺

- 38 五寸 大柱六 長二十尺 退楹十二 長八尺
- 39 五寸 樑五 長十二尺 通內廣十七尺 長十
- 40 一尺 階高五寸 ㉓水家三間 ㉔稜公房梗四間
- 41 ㉕確家四間申向 ㉖馬廐梗五間 ㉗沙門一間丁
- 42 向_額號桐裏山大安寺黑字書 柱四 長
- 43 七尺五寸 楹二 長十四尺 樑五 長二十五
- 44 尺 通內廣十一尺 長十二尺 階高五尺 同
- 45 門內左邊樓二間 平家二間 右邊樓二間
- 46 平家二間 犯家三間以樓一間乙向 ㉘上院
- 47 主廳三間丁向 柱八 長八尺 楹四 長十六
- 48 尺 中楹四 長七尺 樑七 長十二尺 通內廣
- 49 十三尺 長十一尺 階高二尺 左右翼廊各
- 50 二間 犯樓平家并二間 ㉙藏主房梗二間 ㉚入
- 51 室房梗四間 ㉛別監房梗三間 ㉜沐浴房梗三
- 52 間 ㉝厠間三間丁向 ㉞碑殿一間乙向 ㉟樓橋三
- 53 間西向 柱八 長七尺 楹四 長十三尺 樑三
- 54 二末并 長三十四尺五寸 通內長玖尺六
- 55 寸 廣十尺 額號桐裏寺薦福樓黑字書 ㊲寺
- 56 北 舊祖師堂三間 幢塔碑 寺外良地在五
- 57 層石塔一座 高十五尺 幢無

[B]

- 1 福田數 法席 時在福田四十 常行神衆法席
- 2 本定別法席無
- 3 同時本傳食
- 4 本傳 食二千九百三十九石四斗二升五合
- 5 例食布施燈油無
- 6 同時田畝柴
- 7 田畝并四百九十四結三十九負
- 8 坐地三結 下院代四結七十二負

- 9 柴一百四十三結
- 10 晋州任內永善縣地田畝并九十四結十三
- 11 卜七束 同任內宜寧土田畝并一百十結
- 12 二十九卜三束 靈光任內森溪縣地田畝
- 13 并十八結七十卜二束 同任內牟平縣地
- 14 田畝并二十九結八十五卜
- 15 羅州任內餘鯨縣地田畝并九十七結十八
- 16 卜 寶城任內五果縣地田畝并六十一結
- 17 五十五卜 昇州任內富有縣地田畝并二
- 18 十二結九十八卜八束 陝川任內加祚縣
- 19 地田畝并六十結三十卜二束 昇平縣地
- 20 阿今島 小楮島 用老島等藪田九結九十九
- 21 卜八束 荳原地塩盆一所
- 22 同時奴婢
- 23 奴十名 婢十三名

『桐裡山泰安寺事蹟』에서는 이 두 자료를 별개의 자료처럼 수록하고 있지만 <수선사형지안>과 비교할 때 [A]와 [B]의 두 자료는 동일한 문서, 즉 <대안사형지안>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선사형지안>의 문서 형식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 [A] [B]와 대응되는 <수선사형지안>의 부분을 [C]와 [D]로 제시해 보았다.

[C]

- 1 [a]
- 2 [] 長拾參尺 通內長捌尺 廣捌尺伍寸 梁申并 []
- 3 [] [] 額号曹溪山修禪社金字 [] [] 家陸間申向 同俠家陸間 ㉑ [] [] [] []
- 4 間壬向 ㉒舍廳梗肆間庚向以 左 右各柒間房 南邊家參間壬向 北邊家參間 [d]
- 5 梗伍間 ㉓園頭梗玖間丙向 ㉔泐門壹間庚向 柱肆 各長伍尺捌寸 楹貳 各長拾尺
- 6 梁申并參 通內長捌尺 廣捌尺 前階高壹尺 後高參寸 ㉕經板堂參間 [h]

- 7 □□間 庚向 柱捌 各長捌尺參寸 前後退柱捌 各長柒尺柒寸 楸肆 □
- 8 □長玖尺 廣拾尺 □伍寸 □ ①水家肆間丙向 □ ①
- 9 □
- 10 長拾尺參寸 梁申并貳拾伍 通內各長玖尺 廣玖尺參寸 前階高壹尺 □
- 11 陸寸 食堂主弥勒鑄成 金色 座高壹尺甲向 同蓮臺高伍寸 下木臺高參尺 □
- 12 同南廊參間壬向 □ 鑰銅樓椽參間丙向 下童足柱拾貳 各長柒尺伍寸 上柱
- 13 捌 各長伍尺陸寸 前退柱肆 各高肆尺參寸 楸肆 各長拾貳尺 梁申并拾貳 通內
- 14 各長拾尺陸寸 廣拾壹尺 前階高陸寸 後高參寸 ①穀食樓梗五間甲向 □ 下
- 15 童足柱貳拾貳 各長陸尺捌寸 上柱拾貳 各長伍尺貳寸 南退柱陸 各長肆尺 □ 寸
- 16 楸陸 各長捌尺 梁申并貳拾 通內長玖尺伍寸 廣玖尺 前階高伍寸 後高 □ □
- 17 捌寸 □ 廊貳間壬向 □ ③ 單間甲向 ④ 確家壹間 □ ④
- 18 □ 參間丙向 ⑤ 沐浴房參間丙向 左右附舍 ⑥ 廁家貳間丙向 □ 外樓門壹間 □
- 19 向 下童足柱捌 各長陸尺肆寸 上柱肆 各長伍尺貳寸 後退柱貳 各長上同 □ □
- 20 各長捌尺肆寸 梁申并肆 通內長捌尺貳寸 廣上同 前階高伍寸 後高伍寸 □
- 21 ⑦ 樓橋參間 左右隅柱肆 各長柒尺捌寸 中行柱各長陸尺貳寸 楸肆 各長拾
- 22 尺 中楸肆 各長玖尺 梁申并貳拾壹 通內長捌尺伍寸 廣拾貳尺陸寸 外 □
- 23 ① 甲門壹間 ② 丙門壹間 ③ 北小戶 幢塔碑
- 24 祖師堂前 青石碑壹座

[D]

- 148 福田數 法席 時在道衆
- 149 四十七 三寶堂衆九十六 常行法席 齋前 誦金剛般若 齋後中
- 150 夜 禪堂 別法席 本定法席 並只無 本傳 諸忌日寶 及雜寶 納租
- 151 四千石 社主法答私財條 及諸檀那 施納 祝 聖鎮兵長年寶 粗六千
- 152 石 丙子年分 入內侍文正 奉 宣鎮兵條以 施納 油香寶 一百石 例食
- 153 布施 並只無 田畝柴 參知政事崔 祝 聖油香寶以 施納
- 154 宣給文付 昇平郡 葦長伊村 鐵谷村 新谷村 吐叱 庫 并十結五十 □
- 155 國大夫人宋氏 忌日寶以 納同郡任內 加音部曲 四十結三十卜 進禮
- 156 部曲一結 赤良部曲二結 富有縣地田畝 并二結四十九卜 同生妹氏 忌日
- 157 寶以 同郡地田畝 并八十結三十卜 上將軍盧仁綏 祝 聖條以 施納

- 158 宣給公文付 光州田畝 并十五結 陵城郡田畝 并二十八結五十卜 和順縣田畝
- 159 并七結十卜 鐵冶縣田 一結三十卜 上將軍金仲龜 父母忌晨寶以 納富
- 160 有縣田畝 并十七結 檢校軍器監徐敦敬 父母忌晨寶以 施納 利川郡田
- 161 并二十五結乙用良 遠近廻換 以將軍宋緒 納長興府任內 拂音島畝
- 162 五結 以荳原縣田畝 并三十結六十三卜 柴地段 山谷是 良結卜數爻 不知
- 163 審檢 不得 參知政事崔 祝 聖油香寶以 施納 寶城郡任內 南陽縣田
- 164 鹽田七庫 山田三庫 并三結七十卜 昇平郡地 吐叱村 鹽田六庫 筋幣
- 165 肆座 奴婢 檢校軍器監徐敦敬 納奴婢 并載十口 利川郡 在京前
- 166 唐柱下典申公俊教 賈奴三口 同人亦 髮削爲道者玄海名以 納奴婢四口

[A]와 [C]를 비교해 보면 건물의 명칭을 기록한 후 크기[○間]와 좌향[○向]을 기록하고 이어서 건물 기둥의 숫자와 길이, 들보[楸]의 숫자와 길이, 도리[樑/梁申]의 숫자(와 길이), 通內的 폭과 길이, 계단의 높이[階高] 등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서술을 마친 뒤에는 ‘幢塔碑’라는 표제가 나오고 塔 혹은 碑의 위치와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B]와 [D]를 비교해 보면 ‘福田數法席’이라는 표제하에 당시 사찰에 주석하고 있던[時在] 승려의 숫자와 法席의 종류를 기록하고, 이어서 本傳, 例食布施, 田畝柴, 奴婢 등의 순서로 사원의 보유 재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A]와 [B]는 기재 방식과 기재 순서의 면에 있어서 <수선사형지안>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A][B]가 <수선사형지안>과 동일한 성격의 자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는 <수선사형지안>과 비슷한 성격의 문서에 함께 들어 있던 것들이 후대에 『桐裡山泰安寺事蹟』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각기 별도의 자료로 분리되어 수록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선사형지안>의 경우도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曹溪山松廣寺史庫』에는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수록되어 있지 않고 내용 별로 나뉘어 별도의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건물의 현황을 정리한 [C]와 사원의 승려와 재산 현황을 정리한 [D] 부분은 人物部 중의 普照國師 知訥 관련 자료를 모은 곳

에 각기 ‘國師當時建物名稱及尺度’¹⁰⁾와 ‘國師當時大衆及維持資’¹¹⁾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고, 원문서에서 [C]와 [D] 사이에 들어 있는 <普照國師碑文>과 <修禪社重創記>는 각기 人物部의 普照國師 碑文¹²⁾ 항목과 建物部 初創重建重修記文類¹³⁾ 항목에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曹溪山松廣寺史庫』에는 이들 자료가 동일한 문서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만일 송광사에 <수선사형지안> 원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들 네 가지 자료가 하나의 문서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인식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A]와 [B]의 기재 방식이 <수선사형지안>과 비슷하고, <수선사형지안> 중 [A]와 [B]에 대응하는 부분([C]와 [D])이 『曹溪山松廣寺史庫』에 별개의 자료로 나뉘어 수록된 것을 고려하면 본래 <수선사형지안>과 동일한 성격의 문서, 즉 <대안사형지안>의 일부분이었던 [A]와 [B]가 『桐裡山泰安寺事蹟』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자료로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桐裡山泰安寺事蹟』의 편집 당시에는 <대안사형지안>의 원문서 혹은 그것을 필사하였던 寫本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桐裡山泰安寺事蹟』의 편집에는 당시 송광사의 주지로서 『曹溪山松廣寺史庫』의 편집을 주도했던 林錫珍 스님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¹⁴⁾ <수선사형지안>을 자료로 활용하여 寺誌를 편집했던 송광사에서의 편집 노하우가 『桐裡山泰安寺事蹟』의 편집 때에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⁵⁾

10) 『曹溪山松廣寺史庫』, 398-401면

11) 『曹溪山松廣寺史庫』, 401-404면

12) 『曹溪山松廣寺史庫』, 369-381면

13) 『曹溪山松廣寺史庫』, 183-188면

14) 앞의 주 6) 참조.

15) 『曹溪山松廣寺史庫』와 『桐裡山泰安寺事蹟』은 체제와 편찬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泰安寺는 18세기 이후 송광사 출신의 無用秀演(1651-1719)의 문도들이 주석하게 되고, 이후에도 송광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태안사 사지의 편찬에 당시 송광사 주지인 林錫珍 스님이

[A]와 [B]가 <대안사형지안>의 일부이고 『桐裡山泰安寺事蹟』 편집 당시에 <대안사형지안>의 원본 혹은 사본이 태안사에 전해지고 있었다면, <대안사형지안>의 나머지 부분도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C]와 [D] 이외에 <普照國師碑文>과 <修禪社重創記> 등의 금석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수선사형지안>의 구성과 [A]의 마지막 부분에 幢塔碑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안사형지안>에는 [A]와 [B] 이외에 당시 사찰에 전해지고 있던 비문들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안사의 창건 조사인 寂忍禪師 慧徹(惠哲)과 그 손제자인 廣慈大師 允多의 비문들이 그것이다. 실제로 『桐裡山泰安寺事蹟』에는 寂忍禪師의 비문과 廣慈大師의 비문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다. 寂忍禪師의 碑는 일찍이 逸失되었고, 廣慈大師의 碑도 조선후기에 이미 훼손되어 비문을 온전하게 읽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이들 비문의 내용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은 당시 사찰에 이들 비문의 내용을 전하는 자료가 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자료는 <대안사형지기>의 원본 혹은 사본이었을 것이다.¹⁶⁾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된 고려시대 비문들이 <대안사형지안>의 (원본 혹은 사본의) 내용에 의거하였음은 『桐裡山泰安寺事蹟』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朝鮮金石總覽』의 <적인선사비문>의 말미에 <대안사형지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B]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朝鮮金石總覽』에 수록된 <적인선사비문>¹⁷⁾은 당시 華嚴寺에 소장되어 있던 寫本을 轉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6) 1918년에 간행된 李能和의 『朝鮮佛敎通史』와 1919년에 간행된 『朝鮮金石總覽』에 각기 廣慈大師碑와 寂忍禪師碑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泰安寺誌』가 이들 자료를 참조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된 비문과 다른 책에 수록된 비문을 비교하면 적지 않은 異字들이 있어, 어느 일방이 다른 쪽을 참조·인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공통의 자료를 참조하면서 각기 다르게 判讀한 것으로 파악된다.

17) 『朝鮮金石總覽』, 116-120면

載한 것인데,¹⁸⁾ 마지막 부분에 ‘碑末’이라는 표제하에 [B]의 내용 중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이 ‘碑末’ 부분은 얼핏 보면 원래의 적인선사비의 끝부분 혹은 陰記에 기록되었던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B]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정리한 것이다.¹⁹⁾ 이 ‘碑末’ 부분이 원래의 적인선사비에 새겨진 내용이 아니었음은 [B]에 보이는 여러 고을들의 領屬 관계가 적인선사비가 건립되던 당시인 9세기 후반이 아니라 11세기초 이후의 상황을 보이는 것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B]에서 晉州의 任內로 언급되고 있는 永善縣과 宜寧(縣)은 신라시대인 9세기 후반에는 각기 固城郡과 咸安郡에 領屬되어 있었다. 이들이 晉州에 영속되는 것은 고려 顯宗 이후이다.²⁰⁾ [B]의 내용을 축약한 ‘비말’ 부분은 <적인선사비>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다른 신라 및 고려시대의 비문에도 ‘비말’과 같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華嚴寺 소장의 적인선사비 寫本은 적인선사의 비문과 함께 [B]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자료에 의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자료는 비문과 함께 [B]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 즉 <대안사형지안>일 수밖에 없다. 『朝鮮金石總覽』의 <적인선사비문>과 『桐裡山泰安寺事蹟』의 <적인선사비문>은 일부 異字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둘은 모두 <대안사형지안>에 의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桐裡山泰安寺事蹟』에서 여

18) 비문 앞에 ‘全羅南道求禮郡馬山面黃田里華嚴寺藏寫本ニ依ル’라고 설명하고 있다.

19) [B]의 내용 중 田畝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한 6행부터 21행 앞부분까지가 생략되어 있고, 鹽盆의 규모에 대해서 [B]에서 1所라고 한 것과 달리 43結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桐裡山泰安寺事蹟』 편집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생각되는 3행·6행·22행의 ‘同時’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 『高麗史』卷57 地理志2 晉州牧

“永善縣 本新羅一善縣 景德王改名尙善 爲固城郡領縣 高麗初更名 顯宗年來屬 … 宜寧縣 本新羅獐舍縣 景德王改名 爲咸安郡領縣 顯宗九年來屬 恭讓王二年置監務 以新繁縣屬之”

러 곳에 나뉘어 수록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사찰 건물 현황([A])과 승려 및 보유재산 현황([B]), 그리고 금석문들(<적인선사비문> <광자대사비문>)은 본래는 <대안사형지안>을 구성하는 기록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曹溪山松廣寺史庫』에서 여러 곳에 나뉘어 수록되어 있는 고려시대 사찰의 건물 현황([C])과 승려 및 보유재산 현황([D]), 그리고 금석문들(<보조국사비문> <수선사중창기>)이 본래는 <수선사형지안>이라는 하나의 문서의 내용이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럼 비록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기는 하였지만 <대안사형지안>의 본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온전하게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되어 있고, 따라서 <대안사형지안>의 본래의 모습도 복원할 수 있다. [A]와 [B]의 기술 방식, 그리고 <수선사형지안>의 기술 방식을 고려할 때 <대안사형지안>은 “[A]+비문들+[B]”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桐裡山泰安寺事蹟』에 들어 있는 [A]와 <적인선사비문>, <광자대사비문>, [B]를 연결하면 고려시대의 <대안사형지안>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런데 <적인선사비문>과 <광자대사비문> 두 비문의 기재 순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 순으로 배치되었다면 신라시대에 건립된 <적인선사비문>(872년)이 고려초에 건립된 <광자대사비문>(950년)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선사형지안>의 경우에는 보조국사 입적 이후에 건립된 <보조국사비문>(1213년)이 국사의 입적 이전에 만들어진 <수선사중창기>(1207년)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華嚴寺에 소장되어 있던 적인선사비문 사본 뒤에 [B]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던 점이 주목된다. 적인선사비문을 옮겨 쓰면서 ‘碑末’로 [B]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적인선사비문과 [B]의 내용이 연결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21) 다만 [A]의 1행의 ‘當時’와 [B]의 3행·6행·22행의 ‘同時’는 내용상 본래의 문서에 없던 것을 『桐裡山泰安寺事蹟』 편집 당시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선사형지안>에도 그러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다. 만일 그렇다면 <대안사형지안>에서 [B]는 <적인선사비문>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된다. 이 경우 <광자대사비문>은 <적인선사비문>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대안사형지안>은 ‘[A]+<광자대사비문>+<적인선사비문>+[B]’의 형태였다고 추정된다.

2. ‘寺院形止案’의 성격과 작성 시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시대 자료들은 고려시대에 대안사의 현황을 정리한 <대안사형지안>을 분해하여 정리한 것이고, 따라서 분해된 자료들을 조립하면 <대안사형지안>의 원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복원된 <대안사형지안>은 일부 내용과 표현에 있어 원래 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문서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복원된 <대안사형지안>은 원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는 <수선사형지안>과 함께 고려시대 寺院形止案의 성격, 그리고 고려시대 사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선사형지안>과 복원된 <대안사형지안>은 거의 일치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원형지안 모두 첫 부분에 건물들의 현황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탑과 비석, 승려와 法席, 보유 재산의 현황 등이 나오고 있다. 두 형지안에 보이는 각 항목들의 분류 명칭도 동일하다. 즉 <대안사형지안>에는 각 항목들을 佛像間閣, 幢塔碑, 福田數法席, 本傳, 例食, 田畜柴, 奴婢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선사형지안>에도 첫 부분의 佛像間閣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들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기재 순서도 동일하다. <수선사형지안>에 佛像間閣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앞부분이 결락된 때문인데, <대안사형지안>의 佛像間閣 부분([A])과 <수선사형지안>의 첫 부분([C])이 동일한 성격과 형식을 갖는 것을 볼 때

<수선사형지안>의 결락된 앞부분 첫머리에도 佛像間閣이라는 명칭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A]와 [C], [B]와 [D]의 비교에서 보듯 두 형지안의 기재 형식도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은 형식상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두 문서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거나 각각 개별 사찰 차원에서 작성되었다면 이처럼 동일한 형식을 띠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²⁾ 이와 관련하여서는 1230년에 전국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그 개창시기와 현황을 조사한 사실이 주목된다.²³⁾ 이때의 조사는 5道 지역 사찰들의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修禪社나 大安寺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조사의 결과로서 사찰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가 작성되었을 터인데,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은 그러한 사찰 현황을 기록한 문서의 성격에 정확하게 부응하고 있다.²⁴⁾ 더욱이 <수선사형지안>에 보이는 인물들의 관직은 1220년대의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기적으로도 1230년의 조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을 1230년에 있었던 전국적 규모의 사원 현황 조사 내용을 정리한

22) 金東旭[1993: 152]에서도 두 문서의 기재 방식과 문서에 나타난 건물 구성에서 공통된 모습이 많은 것으로 볼 때 같은 시기에 함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3) 『三國遺事』卷4 <寶讓梨木> “庚寅年 晉陽府貼五道按察使, 各道禪敎寺院始創年月形止. 審檢成籍”

24) 『三國遺事』卷4 <寶讓梨木>에는 1230년의 조사 당시 작성된 雲門寺에 관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雲門寺의 기원에 관한 옛 전승을 기록하고 있어 <수선사형지안>이나 <대안사형지안>과는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르다. 1230년의 사원 조사 당시 주요 조사 대상은 사찰의 기원(‘始創年月’)과 현황(‘形止’) 등 두 가지였는데, 『三國遺事』에 수록된 운문사 관련 문서의 내용은 前者에 해당하고,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의 내용은 後者에 해당한다. ‘始創年月’과 ‘形止’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현재 문서가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의 앞부분에 ‘始創年月’에 관한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서로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종래 <송광사형지안>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1230년의 사원 조사와 관련짓는 견해²⁵⁾ 이외에도 ①1221-1226년 사이²⁶⁾, ②1221-1223년 사이²⁷⁾, ③三別抄 정권이 형성된 시기 전후²⁸⁾ 등의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①은 문서에 參知政事로 나타나는 崔怡가 參知政事로 임명된 시기(1221년)와 翊戴功臣으로 책봉된 시기(1226년)를 근거로 하고 있고, ②는 문서에 보이는 崔怡의 參知政事 임명 시기, 盧仁綏의 사망 시기(1227년), 金仲龜가 流配되어 있던 시기(1224-1227년)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편 ③는 修禪社의 토지가 元에 징발되기(1270년) 이전이라는 점과 이 문서의 작성 배경을 珍島에 자리잡은 三別抄 정권의 세력 확대를 염려 한 중앙 정부와 수선사가 공동의 대책 마련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수선사형지안>에 등장하는 崔怡 등의 인물은 모두 토지 기진자로서, 문서에 기록된 이들의 관직은 문서 작성 당시가 아니라 그들이 토지를 寄進할 때의 관직일 가능성이 높다.²⁹⁾ 따라서 그들이 해당 관직을 지니고 있던 시기는 문서의 상한 연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실제 문서 작성 시기와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盧仁綏가 사망한 1227년 이후에도 그가 기진한 토지는 上將軍 盧仁綏가 기진한 토지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선사형지안>의 작성을 삼별초 정권의 활동과 관련지을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삼별초 정권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전라도 남부 지역에서 <수선사형지안>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여유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수선사형지안>과 같은 문서는 전쟁 등으로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 보다 사회가 안정된 상황에서 작성될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된다.

Ⅲ. <修禪寺形止案>의 보완과 高麗시대 禪宗寺院의 공간 구성

1. <大安寺形止案>과의 비교를 통한 <修禪社形止案> 佛像間閣 부분의 보완

기존의 <수선사형지안> 이외에 <대안사형지안>이 새롭게 확인됨으로써, 고려시대 사원형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수선사형지안>의 제일 앞에 위치한 佛像間閣 부분에는 적지 않은 결락이 있는데, <대안사형지안>의 佛像間閣 부분과 비교하면 약간의 보완이 가능하다. 먼저 <수선사형지안>의 6행 끝에서 8행 중간부분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 ㉞의 건물은 바로 뒤 이어서 3間的 水家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淨廚로 추정된다.³⁰⁾ <대안사형지안>의 경우에도 ①의 淨廚 바로 다음에 ㉞의 水家가 기록되어 있는데, 水家は 주방에서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요리할 때 재료를 다듬거나, 설거지 등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선사형지안>의 8행 끝에서 11행 첫 부분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 ①의 건물은 食堂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

25) 許興植[1984: 269, 271]에서도 1230년이라고 하였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6) 任昌淳[1971: 47-48]

27) 朴宗基[2002: 347-349]

28) 배상현[2004: 210-211]

29) 崔怡와 盧仁綏가 祝聖을 위해 寄進한 토지와 관련하여 국왕이 발급한 문서가 첨부되었다고 하는데(“祝聖油香寶以施納 宣給文付/ 祝聖條以施納 宣給公文付”, <수선사형지안>에서는 해당 문서에 의거하여 이들의 관직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30) 2012년 11월 17일의 <수선사형지안> 원본 조사에서 해당 부분의 아래쪽 글자가 廚로 읽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선사형지안> 원본을 열람하게 해준 송광사정보박물관 관장 古鏡스님과 김일동 학예연구사에게 감사드린다.

에 대한 서술에 이어서 ‘食堂主 彌勒鑄成 …’이라고 하여 식당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사형지안>에서도 食堂의 건물 규모에 대한 서술에 이어서 ‘堂主 藥師鐵造坐像 …’라는 식당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에 대한 설명이 보이고 있다. <대안사형지안>의 金堂과 僧堂, 羅漢堂 등에 대한 서술에서도 먼저 건물의 규모를 기록한 후 해당 건물에 봉안된 불상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이 당시 사원형지안의 일반적 기재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현재의 <수선사형지안>의 가장 앞부분에 서술되고 있는 ㉠은 ‘曹溪山修禪社’라는 額號가 있는 것으로 보아 門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대안사의 경우 ‘桐裏山大安寺’ 액호는 沙門에 붙어 있는데, 수선사의 경우는 沙門에는 額號가 없다. 사문 대신 ㉠에 額號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에 걸려 있던 ‘曹溪山修禪社’의 편액은 金字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국왕이 내려준 御筆의 편액으로 생각된다. 보조국사 지눌의 비문과 <조계산중창기>에 의하면 熙宗이 御筆로 ‘曹溪山修禪社’라는 額號를 써서 내려주었다고 하는데,³¹⁾ ㉠에 있던 편액이 바로 그 액호일 것이다. <수선사형지안> 뒷부분에 外樓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은 內樓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는 6間짜리 가옥 두 채가 부속되어 있는데, 이는 <대안사형지안>에 보이는 沙門의 좌우에 각기 4間의 가옥 등이 부속되어 있는 것과 상통한다. 부속 가옥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문으로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주요한 경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선사형지안>의 기재 순서로 보아 ㉠은 沙門보다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선사의 중심 공간과 그 바깥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문이었다고

31) <昇平府曹溪山修禪社佛日普照國師碑銘 并序> “上 自潛邸素重其名 及即位勅改號松廣山 爲曹溪山 吉祥寺 爲修禪社 御書題榜”(普照思想研究院[1989: 420-421])
 <修禪社重創記> “上聞而嘉之 乃易山名曰曹溪 社名修禪 仍以御筆題額 以褒異之”

생각된다.

이와 같이 <수선사형지안>의 佛像間閣 중에서 명칭이 결락된 건물 중 ㉠, ㉡, ㉢은 <대안사형지안>과 비교해 볼 때 각기 內樓門, 淨廚, 食堂 등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된 내용을 토대로 <수선사형지안>의 佛像間閣에 기록된 건물들의 규모와 특성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修禪社形止案>에 보이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

명칭	정면 규모	좌향	기타
㉠(內樓門)	미상	申向	□□家 6칸, 依家 6칸
㉡□□□	미상	壬向	
㉢□舍廳梗	4間	庚向	南邊家 3칸, 北邊家 3칸
㉣□□梗	5間	미상	
㉤園頭梗	9間	丙向	
㉥沙門	1間	庚向	
㉦經板堂	3間	미상	
㉧(淨廚)	3間	庚向	柱 8개, 前後退柱 8개
㉨水家	4間	丙向	
㉩(食堂)	5間	미상	南廊 3칸(壬向), 彌勒 봉안
㉪鍤銅樓椽	3間	丙向	누각식 건물 下童足柱 12개, 上柱 8개, 前面退柱 4개
㉫穀食樓椽	5間	甲向	누각식 건물, 협랑(?) 2칸 下童足柱 22개, 上柱 12개, 南退柱 6개
㉬□□□	1間	甲向	
㉭確家	1間	미상	
㉮□□	3間	丙向	
㉯沐浴房	3間	丙向	左右附舍
㉺廁家	2間	丙向	
㉻外樓門	1間	미상	누각식 건물 下童足柱 8개, 上柱 4개, 後退柱 2개
㉼樓橋	3間	미상	1面退
㉽甲門	1間	甲向(?)	

㉔丙門	1間	丙向(?)	
㉕北小戶	-	-	

이 표에서 보듯이 현재의 <수선사형지안>에는 모두 22 종류의 건물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수선사 건물 전체가 아님은 물론이다.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佛殿(金堂)과 僧堂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선사중창기>에는 지눌과 그 제자들의 중창으로 佛宇·乘寮·齋堂·廚庫 등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였는데,³²⁾ 현재의 <수선사형지안>에는 齋堂과 廚庫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보이지만 佛宇와 乘寮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래의 <수선사형지안> 앞부분에는 <대안사형지안>에 보이는 金堂, 羅漢堂, 僧堂, 그리고 大藏堂 등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수선사형지안>의 幢塔碑 부분에는 靑石碑, 즉 보조국사비가 祖師堂 앞에 있다고 하고 있어,³³⁾ 당시 수선사에 祖師堂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당 앞에 보조국사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수선사의 개창자인 보조국사 지눌을 위한 건물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수선사에 善法堂이 있었던 것도 확인되고 있다. 보조국사 지눌의 비문에 의하면 지눌은 입적 당일 아침에 선법당에 나아가 승려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한 후 法床에 앉아 입적하였다고 한다.³⁴⁾ <대안사형지안>에는 善法堂 대

32) <修禪社重創記> “自丁巳年 經始伐木輦土 經之營之 凡立屋八十餘間 佛宇·乘寮·齋堂·廚庫 無一不備”

33) <修禪社形止案> “祖師堂前 靑石碑一座”

34) <昇平府曹溪山修禪社佛日普照國師碑銘 并序> “將曉 問今是何日. 曰 三月二十七日也. 師 具法服盥漱 云 這箇眼 不是祖眼 這箇鼻 不是祖鼻 這箇口 不是孃生口 這箇舌 不是孃生舌. 令擊法鼓集衆 策六環錫杖 步至善法堂 祝香昇座 如常儀 乃振錫 舉前夕方丈中間答語句因緣云 禪法靈驗 不可思議 今日 來到這裏 欲爲大衆破去也 爾等 不味一着子問來 老漢 亦不味一着子答去. 顧視左右 以手摩之曰 山僧命根 盡在諸人手裡 一任諸人 橫拖倒曳 有筋骨底 出來. 便伸足踞于床 隨問而答 言謗義詳 辯才無碍 具如臨終記. 最後 有僧問 昔日 毘耶淨名示疾 今日 曹溪牧牛作病 未審是同是別. 師云 爾學同別來. 乃拈拄杖 數下云 千種萬船擱在這裡. 因執杖 踞床不動 泊然而逝將曉 問今是何日. 曰 三

신 選法堂이 보이는데, 善法堂의 異稱이거나 誤寫로 생각된다. 대안사 선법당의 경우 앞부분에 기록된 주요 건물임에도 앞뒤에 나오는 금당, 승당, 식당, 나한당 등과 달리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있는데, 예배 공간이 아니라 사원의 대중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소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안사의 선법당은 3間的 몸체에 좌우에 각기 3間과 7間的 翼廊을 가진 대형 건물로, <대안사형지안>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건물이다. <수선사형지안>의 서두 결락 부분에는 조사당과 선법당 등의 현황도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2. 寺院形止案에 나타난 修禪社와 大安寺의 건물 및 공간 구성

1)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에 보이는 건물의 비교

앞에서 본 것처럼 <수선사형지안> 佛像間閣에는 적지 않은 부분이 결락되어 있지만 <대안사형지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수선사형지안>이 작성될 당시 수선사에는 佛像間閣에 보이는 건물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물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수선사형지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당시 수선사와 대안사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건물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 다음 표는 사원형지안을 토대로 수선사와 대안사에 있던 건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月二十七日也. 師 具法服盥漱 云 這箇眼 不是祖眼 這箇鼻 不是祖鼻 這箇口 不是孃生口 這箇舌 不是孃生舌. 令擊法鼓集衆 策六環錫杖 步至善法堂 祝香昇座 如常儀 乃振錫 舉前夕方丈中間答語句因緣云 禪法靈驗 不可思議 今日 來到這裏 欲爲大衆破去也 爾等 不味一着子問來 老漢 亦不味一着子答去. 顧視左右 以手摩之曰 山僧命根 盡在諸人手裡 一任諸人 橫拖倒曳 有筋骨底 出來. 便伸足踞于床 隨問而答 言謗義詳 辯才無碍 具如臨終記. 最後 有僧問 昔日 毘耶淨名示疾 今日 曹溪牧牛作病 未審是同是別. 師云 爾學同別來. 乃拈拄杖 數下云 千種萬船擱在這裡. 因執杖 踞床不動 泊然而逝”(『普照全書』, 421면)

[표 2] 修禪社와 大安寺의 건물들 비교

修禪社				大安寺			
명칭	정면 규모	좌향	비고	명칭	정면 규모	좌향	비고
金堂	미상	미상	결락	㉑金堂	1間	丁向	一間排回 ³⁵⁾
祖師堂	미상	미상	결락	㉒食堂	3間	丁向	前後退
僧堂	미상	미상	결락	㉓僧堂	4間	乙向	前後退(?)
善法堂	미상	미상	결락	㉔選法堂	3間	丁向	左翼廊 3간, 右翼廊 7간
羅漢堂	미상	미상	결락(추정)	㉕羅漢堂	3間	丁向	犯行廊 3간
大藏堂	미상	미상	결락(추정)	㉖大藏堂	3間	丙向	西衍行廊 4간
...		㉗經房梗	9間	壬向	
㉑(內樓門)	미상	미상	□□家 6간 俠家 6간	㉘維那房	9間		
㉒□□□		壬向		㉙三寶庫廳	4間	丙向	前後退(南北退)
㉓□舍廳梗	4間	庚向	南邊家 3간 北邊家 3간	㉚大庫梗	5間	癸向	
㉔□□梗	5間			㉛樓椽	3間	癸向	前退
㉕圓頭梗	9間	丙向		㉜淨廚	5間	癸向	前後退
㉖沙門	1間	庚向		㉝水家	3間		
㉗經板堂	3間			㉞椽公房梗	4間		
㉘(淨廚)	3間 ³⁶⁾	庚向	前後退	㉟碓家	4間	申向	
㉙水家	4間	丙向		㊱馬廐梗	5間		
㉚(食堂)	5間 ³⁷⁾	미상	南廊 3간 壬向	㊲沙門	1間	丁向	左邊樓 2間·平家 2間, 右邊樓 2間·平家 2間, 犯家 3間
㉛鑰銅樓椽	3間	丙向	前退	㊳上院主廳	3間	丁向	左右翼廊各 2間, 犯樓·平家并 2間

㉜穀食樓梗	5間	甲向	南退 협랑(?) 간	㉝藏主房梗	2間		
㉞□□□	1間	甲向		㉟入室房梗	4間		
㊱碓家	1間			㊲別監房梗	3間		
㊳□□□		丙向		㊴沐浴房梗	3間		
㊵沐浴房	3間	丙向	左右附舍	㊶廁間	3間	丁向	
㊷廁家	2間	丙向		㊸碑殿	1間	乙向	
㊹外樓門	1間	미상	後退	㊺樓橋	3間	西向	
㊻樓橋	3間		1면退	㊼舊祖師堂	3間		
㊽甲門	1間	甲向					
㊾丙門	1間	丙向					
㊿北小戶	-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원형지안 작성 당시 대안사에는 26개, 수선사에는 30여 개의 건물이 있었다. 건물들은 正面은 1間부터 9間까지 건물들은 크기가 다양하지만 측면은 모두 1間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⁸⁾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退間을 추가하거나 翼廊, 俠廊, 俠家, 附舍 등을 배치하고 있다. 退間은 앞뒤 양쪽 면 혹은 한쪽 면에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안사 金堂의 경우는 사방에 退間을 두고[排回] 있다. 예배를 위해 보다 넓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

35) ‘一間排回’는 가운데에 불상을 모신 사방 1칸 부분이 있고, 그 주변 사방에 퇴칸이 둘러싸고 있는 평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金東旭 [1993: 149] 참조)

36) <수선사형지안>에서 ㉞ 건물의 間數는 결락되어 있지만 기둥[柱]이 8개이므로 정면 3間 규모의 건물이다.

37) <수선사형지안>에서 ㉚ 건물의 間數는 결락되어 있지만 梁申이 25개이므로 5間 건물이다. 梁申의 숫자는 한 칸의 도리[梁]수 x 칸수로, 梁申이 25가 될 수 있는 것은 5間 건물 밖에 없다.

38) 앞뒤 양쪽 혹은 한쪽에 퇴칸이 있는 경우에는 측면을 3間 혹은 2間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선사 금당도 같은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사찰에 있는 건물 중에는 같은 성격의 건물들이 다수 있었다. 사찰의 기본이 되는 佛殿과 僧寮 이외에 善(選)法堂, 祖師堂, 食堂, 淨廚, 水家, 碓家, 沙門, 沐浴房, 廁家, 樓橋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 명칭은 다르지만 수선사의 鑰銅樓椽·穀食樓梗와 대안사의 大庫梗·樓椽도 같은 성격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수선사형지안>에서 이름이 관독되지 않는 건물들 중에도 대안사의 건물들과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碓家 전후에 기록된 ㉓과 ㉔ 중의 하나는 馬廐梗가 아닐까 생각된다.

두 사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고려시대 사원, 특히 禪宗 사원 일반에 존재했던 요소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원의 핵심인 佛殿(金堂, 羅漢堂)과 승려들의 거주 공간인 僧寮로서의 僧堂은 물론 사찰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 이외에 善(選)法堂, 祖師堂, 食堂, 淨廚, 水家, 碓家, 沙門, 沐浴房, 廁家, 樓橋와 창고 등이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善法堂은 본래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忉利天의 天人들이 모여 논의하던 건물로, 일찍이 석가모니가 사후 도리천에 태어난 모친을 위해 이곳에서 설법하기도 하였다.³⁹⁾ 고려시대 사원의 선법당은 승려들이 모여 논의하거나 설법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기존 사찰들, 특히 山地가 아닌 도회지에 있던 사원의 講堂을 대체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祖師堂은 사찰 開創祖 등의 영정을 모시는 건물인데, 不立文字·以心傳心 등을 내세우며 스승으로부터의 직접적 가르침을 중시했던 선종 사원에서는 필수적 건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수선사의 경우 처음에는 개창자인 보조국사 지눌의 영정을 봉안하는 건물이었지만 후대에는 지눌 이후 역대 수선사 社主들의 영정도 봉안되었다. 현재 송광사 國師殿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대안사 조사당에는 山門 창건자인 寂忍禪師와 고려 태조의 존승을 받았던 廣慈大師 등의 영정이 봉

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대안사형지안>에서 ‘舊’祖師堂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기능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찰 구성원의 식생활과 관련되는 食堂과 淨廚(부엌)와 함께 부엌의 기능을 보완하는 水家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흥미롭다. 식당과 정주는 두 사찰 모두 前後에 退間을 가진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수선사와 대안사에 각기 143명과 40명이라는 많은 승려들을 비롯하여 그들을 보조하는 다수의 인력이 상주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선사 식당에는 鑄造의 미루불, 대안사 식당에는 鐵造의 약사여래불이 봉안되어 있었다. 두 사찰 모두 食堂에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碓家和 여러 창고의 존재는 당시 사원의 경제 주체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대안사에 보이는 馬廐梗는 당시 사원에서 다수의 말을 사육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이동 수단으로서 말을 필수 불가결하였을 것이다. 고위 승려들의 乘馬도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수선사에도 馬廐梗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고의 경우 수선사는 鑰銅樓椽·穀食樓梗의 2동 8間, 대안사는 樓椽 1동 3間으로 나타나는데, 대안사의 三寶庫廳(4間)과 大庫梗(5間)도 창고의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沐浴房과 廁家도 다수 대중에 공동생활하는 사원의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沙門은 사찰의 정문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찰 모두 沙門이 1間으로 되어 있지만 대안사 沙門 좌우에는 여러 間의 부속 건물이 붙어 있다. 여러 개의 문을 가진 수선사와 달리 대안사에서는 沙門이 유일한 문으로서 사찰의 가장 중요한 경계 기능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樓橋는 사원 입구의 계곡을 건너는 곳에 자리하면서, 사원의 경계 역할과 동시에 俗世를 벗어난 사원과 俗世를 구분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한편 두 사찰 중 한쪽에서만 확인되는 건물들도 있다. 수선사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는 內樓門, 外樓門, 甲門, 丙門, 北小戶 등의 문과 經板堂, □舍廳梗, 園頭梗 등이 있고, 대안사에만 보이는 것으

39) 『佛光大辭典』 제3판, 善法堂 항목 참조.

로는 經房梗, 維那房, 三寶庫廳, 稼公房梗, 上院主廳, 藏主房梗, 入室房梗, 別監房梗, 碑殿 등이 있다. 대안사에만 보이는 건물 중 經房梗와 碑殿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사찰 내부의 所任과 관련된 건물들로서, 이와 관련된 건물들은 수선사에도 있었을 것이다. <수선사형지안>의 결락된 부분, 즉 內樓門의 앞쪽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 ㉞와 ㉟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㉟의 □舍廳梗이 그러한 소임과 관련된 종합적 건물일 수도 있다. 沙門 하나만 있는 대안사와 달리 수선사에 다수의 문이 보이는 것은 두 사찰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村里에서 멀리 떨어진 골짜기 안쪽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안사⁴⁰⁾와 달리 수선사는 村里와 가깝고 비교적 넓고 평탄한 지역에 위치한 수선사⁴¹⁾는 內外의 樓門과 여러 방향의 문들이 필요하였을 수 있다. 園頭梗는 사찰의 부속 농지를 관리하는 소임과 관련된 건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수선사 주위에 텃밭 등의 농지가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선사에 經板堂이 별도로 있는 것은 다수의 경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수선사에서는 다수의 문헌들을 판각한 사실이 확인된다.⁴²⁾

한편 대안사의 經房梗는 9間的 대형 건물인데, 경전을 공부하던 건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선사에도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 있었

을 가능성이 있다. 碑殿은 이름대로 碑와 관련된 건물인데, 비를 안치한 건물이거나 비를 관리하던 건물이라고 생각된다. 대안사에는 신라 때 건립된 寂忍禪師碑와 고려초에 건립된 廣慈大師碑 등 두 개의 비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건물일 것이다. 수선사에도 사원형지안 작성 당시에 普照國師碑가 건립되어 있었지만 碑殿과 같은 별도의 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C]의 24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가 바로 祖師堂 앞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수선사와 대안사의 건물 배치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 佛像間閣 부분의 건물 기재 순서는 대체적으로 佛殿과 僧堂 등이 앞에 오고, 사무용 건물이나 창고,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물들이 뒤에 오고 있지만 두 형지안의 기재순서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대안사형지안>에서는 식당이 金堂 다음으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수선사형지안>에서는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수선사형지안>에는 沙門 뒤쪽에 소임과 관련된 건물들이 보이지 않는 반면, <대안사형지안>에는 上院主廳, 藏主房梗, 入室房梗, 別監房梗 등 다수의 소임 관련 건물들이 沙門 뒤에 서술되고 있다. 이는 사원형지안 불상간각의 건물 기재 순서가 건물들의 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들의 배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대안사형지안>에서 佛殿 중 하나인 羅漢堂이 여러 건물들 다음에 기록되어 있고, <수선사형지안>에서 문들을 한 곳에 일괄하여 기록하지 않고 內樓門, 沙門, 外樓門 등이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 중심에 위치한 金堂부터 시작하여 그 바깥의 건물들을 차례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선사형지안>의 甲門, 丙門, 北小戶와 <대안사형지안>의 舊祖師堂 등은 위치 때문이 아니라 앞의 기재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선사의 경우

40) <寂忍禪師碑>에서는 大安寺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谷城郡東南有山 此曰桐裏 中有精舍 名曰大安 其寺也 千峰掩映 一水澄流 路迥絕而塵侶到稀 境幽邃而僧徒住靜 龍神呈之瑞異 蟲蛇遁其毒形 松暗雲深 夏涼冬煖 斯三韓勝地也’라고 표현하였다.

41) 修禪社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수선사중창기>는 ‘然是土也 境勝而地肥 泉甘而林茂 眞可謂 修心養性 集衆作福之所也’로 표현하고 있다. 定慧結社에 참여하는 대중의 수가 늘어나자 보다 넓은 곳을 찾아서 자리한 곳이 修禪社가 위치했던 지금의 松廣寺 지역이다.

42) 知訥 생전인 1207년에 『六祖法寶壇經』이 修禪社에서 간행되었고, 지술 사후인 1215년에는 지눌의 저술인 『看話決疑論』과 『圓頓成佛論』이 간행되었다. 이들 이외에도 지눌의 여러 저술과 어록 등도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형상 주 출입방향이 西向이므로 동쪽, 남쪽, 북쪽에 위치한 문들은 건물들의 기재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가 마지막에 모아서 서술되었고, 대안사의 경우도 사찰의 북쪽에 위치한 舊祖師堂은 주 출입방향인 서남향과 어긋나는 데다가 당시에는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을 모두 기재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원형지안 불상간각의 건물 기재 순서는 실제 건물들의 배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의 기재 순서를 통해 당시 두 사찰의 공간 구조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수선사의 경우 內樓門 내부와 內樓門~沙門 사이, 沙門~外樓門 사이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內樓門 내부에는 金堂 등의 佛殿과 僧堂, 選法堂, 祖師堂 등의 예배 및 수행과 관련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內樓門~沙門 사이에는 ㉑, ㉒, ㉓, ㉔ 등 네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 정확한 명칭이 확인되는 것은 ㉔의 園頭梗 뿐이다. 園頭가 사찰의 부속 농지를 관리하는 所任으로 생각되고, <수선사형지안>에 사찰 행정을 담당하는 所任과 관련된 건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㉑, ㉒, ㉓ 등도 사찰의 행정을 담당하는 소임과 관련된 건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㉑의 □舍廳梗는 이름에서도 所任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沙門~外樓門 사이에는 經板堂, 淨廚, 水家, 食堂, 鑰銅樓椽, 穀食樓梗, 碓家, 沐浴房, 廁家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 두 개의 건물 등 총 11개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經板堂을 제외하면 모두 승려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건물들이다. 한편 外樓門 바깥에는 樓橋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대안사는 공간을 구분하는 문이 沙門 하나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찰은 沙門을 경계로 그 내부와 외부 두 영역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沙門 내부와 외부, 그리고 上院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沙門 다음에 기재된 上院主廳, 藏主房梗, 入室房梗, 別監房梗 등 네 개의 건물은 沙門 바깥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역시 沙門 바깥에 있는 沐浴房

梗, 廁間 등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별도의 영역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안사형지안>의 제일 마지막의 田畚柴 부분에는 下院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⁴³⁾ 上院主廳과 함께 살펴볼 때 大安寺는 上院과 下院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金堂부터 沙門까지의 건물들이 下院을 이루고, 上院主廳, 藏主房梗, 入室房梗, 別監房梗 등이 별도로 上院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沙門 내부, 즉 下院이 사찰의 중심 영역으로, 이곳에는 예배와 수행, 행정 실무,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上院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모두 소임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소임은 사원 행정의 최고 책임자[院主], 대장경 관리자[藏主], 특정 업무의 책임자[別監] 등이다. 入室房은 선종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 받는 행위 혹은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 받은 제자를 入室이라고 칭하는 것을 고려할 때 寺主 혹은 사찰내 최고 권위를 갖는 승려의 傳法 제자들이 머무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上院에는 상급 소임자나 寺主의 제자들이 머물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은 사찰내 고급 승려들이 머물던 공간이었다고 생각된다. 沙門 바깥에 위치한 沐浴房梗, 廁間, 碑殿 및 사찰 북쪽에 자리한 舊조사당 등은 상원 및 하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영역으로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능에 따라 영역이 구분된 수선사와 달리 대안사에 그러한 영역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 사찰이 처한 지리적 환경에 영향받은 동시에 두 사찰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말에 창립된 대안사의 경우 오랜 시간을 거치며 건물들이 순차적으로 추가된 반면 13세기초에 대규모 중창을 거친 수선사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공간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43) <大安寺形止案> “田畚柴 田畚并四百九十四結三十九負 坐地三結 下院代四結七十二負 柴一百四十三結”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사원형지안의 현존 모습과 성격,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고려시대 선종 사원의 건물과 공간 구성 모습을 살펴 보았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寺院形止案은 고려시대 사원의 건물과 토지, 그리고 사원의 중요한 금석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고려시대 사원의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래 문서의 형태로 전하는 것은 <修禪社形止案>이 유일하지만 『桐裡山泰安寺事蹟』에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대안사형지안>도 복원 가능하다. 원래의 <대안사형지안>의 내용이 ‘(廣慈禪師重創) 當時佛像間閣’ 및 ‘(廣慈時大衆) 福田數法席’ 항목과 <廣慈大師碑文>, <寂忍禪師碑文> 등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원래의 <대안사형지안>을 복원할 수 있다.

복원된 <대안사형지안>은 항목별 기재 순서 및 기재 방식 등에서 <수선사형지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들 문서가 같은 시기에 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수의 사찰에 대해 동일한 성격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문서들은 1230년의 5道 지역 사찰들의 현황 조사 때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에 보이는 인물들의 활동 시기가 13세기 전반으로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수선사형지안> 중 앞부분 일부가 결락되어 있는데, 복원된 <대안사형지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전각의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 것 중 內樓門, 食堂, 淨廚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결락된 부분에는 대안사와 마찬가지로 佛殿, 僧堂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른 자료들에 善法堂과 祖師堂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수선사의 건물들 중 상당수는 <대안사형지안>의 건물들과 공통되고 있다. 이 중 강당을 대체한

善(選)法堂, 산문 개창조 등의 영정을 봉안하는 祖師堂 등에서 선종 사원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대규모의 食堂과 淨廚, 水家, 창고 등이 있었고, 碓家와 馬廐梗, 沐浴房, 廁家 등도 확인된다. 한편 사찰의 공식적 경계로서의 沙門과 실질적으로 바깥 세계와 사찰 영역을 구분하는 樓橋가 보이고 있다. 한편 두 사찰 중 한쪽에만 보이는 건물들도 있는데, 이들은 해당 사찰의 지리적 특성 및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원형지안 佛像間閣에서의 기재 순서는 건물들의 배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두 문서를 통하여 당시 두 사찰의 공간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수선사의 경우 內樓門, 沙門, 外樓門 등 세 개의 문을 경계로 하여 예배 및 수행 공간, 사찰 행정 수행 공간, 일상생활 공간 등으로 구분되고, 대안사는 沙門 내부(=下院)에 예배·수행을 위한 건물과 일상생활을 위한 건물이 함께 배치되었지만 고급 소임을 맡는 승려들이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는 上院主廳, 藏主房梗, 入室房梗, 別監房梗 등의 건물은 沙門 바깥에 별도의 영역(=上院)으로 존재하였다. 한편 沐浴房梗과 廁間 등 특별한 건물은 상원과 하원 바깥에 별도로 위치하였다.

고려시대 사원형지안은 두 점 밖에 전해지지 않지만 고려시대 사원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사원형지안의 자료 성격과 거기에 반영된 사원의 모습 일단을 살펴 보았다. 향후 사원형지안을 토대로 고려시대 사찰의 모습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遺事』

『朝鮮金石總覽』

『曹溪山松廣寺史庫』(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77년)

『泰安寺誌』(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84년)

金東旭

[1993] 「谷城 泰安寺와 順天 松廣寺 建物構成에 대한 高麗時代 文書」『建築歷史研究』제2권 1호, 건축역사연구회

김희철 · 남호현

[2008] 「수선사형지기에 나타난 고려시대 송광사 건물에 관한 연구」『호남문화연구』42,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盧明鎬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학교출판부

朴宗基

[1981] 「13세기 초엽의 村落과 部曲」『韓國史研究』33, 韓國史研究會

[2002]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배상현

[2004] 「松廣寺 소장 古文書에 비친 高麗 寺院의 모습」『한국중세사연구』17, 한국중세사학회

普照思想研究院(편)

[1989] 『普照全書』, 普照思想研究院

李能和

[1918] 『朝鮮佛敎通史』, 新文館

任昌淳

[1971] 「송광사의 고려문서」『白山學報』11, 白山學會.

許興植(편)

[1984] 『韓國의 古文書』, 民音社

[1993] 「修禪社重創記의 史料價値」『古文書研究』4, 한국고문서학회

[1994] 『韓國中世佛敎史研究』, 一潮閣

Abstract

A Study on the Temple Census Registers and the
Space Arrangement of Seon[Chan] Temples
in Goryeo Dynasty

Choe, Yeon Shik
Mokpo National Univ.

The temple census registers in Goryeo Dynasty which contain the duplicates of epitaphs as well as the inventories of the buildings, monks, mass, real estate and movable property are very important material in understanding the state of the temple in the period. The Suseon-sa census register is the only one which remains in original form, but we can also reconstruct the census register of Dae'an-sa by reuniting the remained materials. Comparison with the Suseon-sa census register show that the items such as 'the Inventory of Statues and Buildings at the time,' 'the Inventory of monks and mass,' 'the copy of Great Master Gwangja's epitaph' and 'the copy of Seon[Zen] Master Jeogin's epitaph' in the *Tae'ansa ji* are the separated segments of the Dae'an-sa census register.

The two temple census registers are in common in their entries and the recording style. It shows that they are made in the same time with the same purpose. They might have made in 1230 when the government made the census on the temples in the country except the northern frontiers. The fact that the persons in the register of Suseonsa had their careers in the early 1230s supports this inferenc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at of Dae'an-sa we can restore some losses in the Suseon-sa census register. Some unknown buildings can be confirmed as inner storied building gate, restaurant and kitchen. And there must be the Buddhist sanctums and nunneries. Also in the other materials appear the buildings such as the Seonbeopdang [Good Dharma Hall] and the Josadang[Building dedicated to Founding Patriarch] in the temple. Most of the buildings in the Suseon-sa are also seen in the Dae'an-sa census register. The buildings of the two temples are very common. Among them the Seonbeopdang and Josadang are thought to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 of Seon[Chan] temple. Both temples had big scale restaurant, kitchen, water-house, storehouses, mill-house, stables, bathroom and toilet. They had also the temple gate[samun], as the formal border, and the storied building bridge, as the real border to outer world. While there are some buildings found only in one temple. They are thought to reflect the history and the topographical traits of each temple.

As the recording order of the buildings in the temple census registers is thought to reflect the real arrangement we can infer the formation of the temples. In the Suseon-sa the three gates - inner storied building gate, temple gate and outer storied building gate - divided the temple to three spaces; the space for worship and practice, that of administration and that of daily living. While in the Dae'an-sa, different from the Suseon-sa, there is no spacial division inside the temple gate; all the building for worship, practice and administration existed inside the gate. But the some buildings where high rank monks resided existed in special space called upper part outside the temple gate. The bathroom and toilet were outside the temple gate as well as upper part.

The temple census registers are, though there remain

only two, the valuable material which show the concrete shape of Goryeo temples. We hope more developed studies will be done on the Goryeo temple using these material.

Key Words :

the Temple Census Register, Suseon-sa, Dae'an-sa, the Space Arrangement of Temple, Seon[Chan] Temple, Buddhism in Goryeo Dynasty